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94호(통권590호) 포덕 163(2022)년 6월 9일(목요일)
 발행인 : 박상종 / 편집인 겸 주간 : 주용덕 / 인쇄인 : 윤병업 / 발행소 : 천도교중앙총부



해월신사 순도 124주기 맞아 묘소 참례식 봉행

6월 2일, 박상종 교령 · 이항진 여주시장 등 80여 명 참석



해월신사묘소 앞

지난 6월 2일 해월신사 순도일을 맞아 중앙총부는 여주시 천덕산 신사 묘소를 참례하였다.

참례식에는 박상종 교령을 비롯하여 이정희 연원회의장, 주용덕 총무원장 등 교직자들, 최인경 동덕 등 유족대표들과 김시형 여주교구장,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례식은 이미애 교화관장의 집례로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 병송, 분향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신사 묘소를 비롯하여 도통 전수지 강천면 전거론, 민족대표33인 흥병기 행적 등 여주시의 동학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전거론(여주시 원양1로 575)의 경우 장소만 복원할 것이 아니고 주변 700여평을 매입하여 동학대도소로서, 또한 의암 손병희의 도통전수터로서(올해는 의암성사 손병희의

순도·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임) 명실상부한 동학의 유적지로서 기념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 전거론 마을 이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 전국의 어느 지역 보다도 중요한 곳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마침 "해월 최시형 선생 묘가 경기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유적보호와 함께 역사적 위인을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박상종 교령은 신사묘소 참례식 후 순시화 사모의 묘소를 참례하였다. 최동희, 최동호 두 아들의 묘와 손자되는 최익환의 묘도 신사 묘소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김시형 여주교구장은 이번 참례식에 대해 "홍일선 시인이 해월신사 편 '천지부모'를 현수막으로 만드는 등 여주지역 시민참여가 뜻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해월신사 내수도 손시화 사모 묘소 참례

의암 성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 개최

-6월 9일 개관 9월 30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전시



천도교중앙총부(교령 박상종)와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암 손병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을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6월 9일 개막식은 국민의례,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격려사,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환영사, 박상종 교령의 격려사, 김재옥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장의 축사, 문진오 가수의 축하공연, 테잎커팅,

관람해설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상종 교령은 격려사를 통해 “중앙총부가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희귀한 유물과 자료들이 공개되고, 고려대·민족문제연구소·독립기념관·동덕여대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더해져서 풍성하고 알찬 전시회”가 되길 기원했다.

전시내용은 의암성사의 동학입도, 동학혁명 참여,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 3.1운동, 재판과 옥중투병, 순국과 안장을 사진 자료와 영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근현대 동학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 개막식 참석자들은 “근현대사기념관~북한산순례1, 2코스를 거쳐 봉황각에 이르는 길은 서울시민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곳이라고 전했다. 이곳에는 강제 신속 묘소 등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잘 정비되어 있어 천도교의 역사와 사상을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곳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봉황각이 수련(마음공부)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공로훈장, 훈장증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자주독립에 이바지한바 많은 고 손병희 선열에게 건국공로훈장 중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 - 대통령 윤보선, 1962년 3월 1일’



박상종 교령, 《허선행의 한글아리랑》 조철현 작가 접견



5월 25일 박상종 교령은 변중제 신인간사 대표의 안내로 교령사를 방문한 조철현 작가의 예방을 받았다.

조철현 작가는 《허선행의 한글아리랑》

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3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과 현지 청년들에게 한글 보급을 해온 허선행 타슈켄트1세종학당장의 외길 해외 교사 인생을 다루면서

‘한글 세계화의 여정을 담은 책이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국에 유학 와있는 허선행 선생의 고려인 제자 400여 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는 공중파 뉴스 방송에 방영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박상종 교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 두가지가 있다”면서 “그 하나가 한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한울이라는 인내천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조철현 작가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좋은 비유로 표현해주신 교령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지 출판기념회를 위해 우즈



좌측부터 변중제 대표, 박상종 교령, 조철현 작가
베키스탄으로 출국하는데, 그동안 변중제 신인간사 대표가 여러 차례 독려한 바 있는 고려인 대상 중앙아시아 포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박상종 교령, 윤석열 대통령 오찬 모임 참석

5월 28일,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박상종 교령은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하여 “의암성사 순국100주년임을 강조하며 천도교의 희생을 역설”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종교계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

듬고, 통합을 위해 애써 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더 큰 역할을 종교계가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부와 종교계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에 는 그동안 없던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



을 만들었다. 앞으로 종교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상종 천도교 교령을 비롯하여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참석했고,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김희중 천주교 대구교(광주대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총부 전직원 월례회의

6월 7일, 하나되기 위한 방안 논의



6월 7일 중앙총부 전직원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종 교령은 “힘을 모두 합쳐서 기적을 만들어 가자. 천도교다운 ‘손병희기념관’을 만드는데 10년을 내다 보고, 교단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매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직원들의 하나되기를 격려했다. 이날 사회문화관 신규직원 두정희 차장대우에게 도첩을 수여하였다.

주용덕 총무원장은

- ▶ 특별회계 사업을 우리 교단에 맞물리는 사업으로 최대한 바꿀 것.
- ▶ 11월 중순까지 특별회계사업 완결.
- ▶ 보여주기 사업 지양 (기념식 참례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필요)
- ▶ 6월21일 교구장회의 준비철저 등

을 당부했다.

직원 제안 사항으로는

- ▶ 자살예방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한다.
- ▶ 결재문서, 기록물은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관하자.
- ▶ 1주일에 1번 정도 전직원 경전공부, 수련시간을 갖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신임 사회문화관 두정희 차장대우에게 도첩을 수여하는 주용덕 총무원장

사설

마음을 바르게 쓰자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과 행동이 절제되지 않고 불쑥 나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긴다. 또한, 조심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행동에 있으며, 옳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시일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자에게 수고했다는 말에 앞서 설교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때로는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설교 내용에 의문이 가는 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 될 것들 자신의 주장만 앞세워 이해하기보다는 따지고 가르쳐 들려고 하니 결국, 논쟁이 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예도 생긴다.

또 한 예로 과거에 천도교 행사에 천도교가 주인이 아닌 객처럼 걸돌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왜냐하면 천도교 행사에 천도교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교인이라면 당연히 천도교 행사에 참석해야 함에도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지방 교구장들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인간힘을 쓰는 걸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다행히도 지난 의암 성사 순도-순국 100주기 추모식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교인이 대교당에 모여 뜻있는 추모식을 봉행하였다. 실로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지 않았는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의 모습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마는 각자위험하면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설 땅이 없어진다.

한울님을 믿는 사람은 한울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도교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항상 마음에 있어 한울 마음으로써 준거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되고, 매사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과 야집을 버리고 교단 발전을 위한 화합의 길로 다 함께 나가길 기대한다.

전국 교구장 회의 6월 21일 14시
수운회관 907호에서, 줌 화상회의 병행

한국독립운동 지도자 의암 손병희의 역할

동학학회(회장 임형진)는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5월 19일 오후 수운회관 306호에서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의암성사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날 주제발표 중 박세준 덕성여대 교수의 「한국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의 역사적 평가」의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실

1910년대 총독부와 종교조직

1910년대 조선의 각 종교와 총독부의 관계는 천차만별이었다. 총독부의 “공인종교”라는 종교정책은 하나지만 각 종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총독부의 의중이었다. 국가 또는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구분하고, 그 구분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이때 종교 조직 역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저항을 결정한다. 1910년대 각 종교의 총독부와 관계는 <표>와 같다.

종교계의 반응	협력	저항
총독부 정책		
공인종교	개신교(외국인) 천주교 불교(원종)	불교(임제종) 개신교(조선인)
“유사종교”	유교(공자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대동교)

1910년대 각 종교와 총독부의 관계는 공인종교-협력/저항, 유사종교-협력/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종교 중 총독부에 협력한 종교는 외국인 선교사 중심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원종이었다. 이에 반해 총독부에 저항한 종교는 불교의 임제종과 조선인 중심의 개신교였다.

“유사종교” 중 협력한 종교는 유교의 친일 어용 단체인 공자교였고, 저항한 종교는 천도교와 대종교 그리고 유교의 대동교였다.

당시 총독부에 가장 필요했던 종교는 정당성이 부족한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채워주는 종교였다. 총독부가 “공인”한 종교 중 이러한 목적에 맞았던 종교가 기독교였다.

일본 본토에서 통합의 기능을 했던 신토(神道)는 합병 초기 조선에서 모자란 정당성을 채우기에 적합한 종교는 아니었다.

조선왕조 내내 박해를 받았던 불교는 총독부에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는 달랐다.

기독교는 서구 열강 국가들에서 문화 규범으로서 작동하고, 통합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는 총독부가 갖고 있지 못한 정당성, 즉 식민지배의 논리를 채워줄 수 있는 종교였다. 기독교 지원을 통해 총독부가 원했던 것은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지지였다. 총독부는 이를 위해 기독교를 지원했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인 기독교 조직들은 총독부의 지원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기 시작한다. 교황청에서 파견한 주교들이 관리하는 천주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독부의 다음 의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종교였다. 거칠게 말하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총독부의 의중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총독부는 천도교와 대종교에 대해 “유사종교” 낙인을 찍는다. 천도교는 이에 대응하지 않고 병합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했고, 대종교는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로 총본산을 옮겨야 했다. 조선인이 중심인 기독교와 같은 역할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조직의 경우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독교 조직과 같은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천도교나 대종교 불교와 유교의 경우는 낙인이 아니라 “분열정책”으로 총독부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했다.

총독부는 조선 불교계를 일본 불교계에 편입하고자 일을 꾸였고, 그 과정에서 총독부에 협력하는 원종은 지원을, 저항하는 임제종은 억압하는 차별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종교나 천도교와 같이 “유사종교” 낙인이 찍힌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계의 입장은 협력과 저항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는 친일어용단체로 유교계를 분열하려 했던 것과 같은 수법이었다. 유교는 종교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불교와 마찬가지로 총독부의 분열책으로 저항 세력과 협력 세력으로 나뉘어 힘을 모으지

못했다.

이상에서 봤을 때 불교와 유교, 개신교는 친일 분열책으로 나뉜 상태여서 총독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항일 운동을 펼치는 힘을 모으기 어려웠다. 당시 총독부의 기만책으로 분열하지 않았던 종교는 대종교, 천주교, 천도교였다.

하지만 대종교의 경우는 총본산을 만주로 옮겨 국내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온전히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독부와 일제에 쏟을 수 있었던 종교조직은 천도교와 천주교 뿐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던 종교는 천도교였다. 그 이유는 천주교와 천도교의 지도자 차이였다.

1910년대 종교계 독립운동과 천도교의 손병희 역할

천도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은 첫째, 두 종교조직 모두 감독제 유형이라는 것이다. 천도교는 교령을 중심으로,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인다. 감독제 유형의 장점은 명령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의 말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천도교나 천주교의 경우 교령과 교황의 지도력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반면 개신교나 유교 불교의 경우는 각 교파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다. 1910년대 조선의 개신교는 장로회, 미국 남북감리회, 성공회, 안식 교회, 동양선교회, 구세군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은 없었다. 이는 불교나 유교 역시 저항과 협력의 분열 상태이기도 했지만 각 종교를 대표해 정점의 지위를 갖는 지도자는 없었다.

천도교와 천주교의 두 번째 공통점은 감독제 유형인 만큼 종교조직은 분열하

지 않았다. 교령 과 교황을 정점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두 종교조직은 저항 세력과 협력 세력으로 분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 교인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개신교 세력이나 원종과 임제종, 공자교와 대동교로 분열했던 불교와 유교의 경우는 조직 자체의 구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종교 조직의 분열로 인해서 더욱 더 단합을 하지 못했다. 물론 천도교 역시 친일 종교인 시천교의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천도교의 분열이 아닌 동학의 분열이었다. 천도교의 분열을 막은 것은 손병희의 지도력이 발휘했던 부분으로, 지도자의 의무 중 하나인 “조직의 응집” 차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감독제 유형이기 때문에 분열이 어려웠던 천주교와 천도교이지만 1910년대 두 종교의 행보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지도자의 의무 중 하나인 “조직의 지시”와 관련이 있다. 감독제 유형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자의 의중에 따라 종교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뮈텔(G. Mutel) 주교와 프랑스 선교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조선과 조선인들의 운명이 아니라 “조선반도” 땅에서 선교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조선왕조의 조정어든 일본의 총독부이든 상관없이 선교활동의 보장이 중요했고, 이를 보장하는 정부면 그 국적은 상관없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의 전제 통치보다는 일본 제국의 헌법에 따른 총독부의 합법통치”가 그들의 선교활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의 천주교회는 총독부에 협조하며 천주교를 유지 발전시

참수 128년 만에... '동학 접주' 김응문 일가 유체 발굴



동학농민혁명이 참여했다가 일가족이 희생당한 전남 무안 고 김응문 일가의 유해 발굴작업이 마무리됐다. 후손들은 전문가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서훈 추진 등 기념사업 방안을 찾고 있다. 김응문의 후손인 김성환 전 농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은 “4월28일 김응문과 둘째 동생 효문, 아들 여정의 유골을 발굴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막냇동생 자문의 유골을 수습해 선조들의 유해를 모두 확인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무안 몽탄면 차피마을 나주 김씨 장손이었던 김응문(1849~1894)은 1894년 4월 두 동생과 큰아들을 이끌고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해 동학 접주(지역 관리자)로서 무기 공급, 군자금 지원, 훈련 등을 지원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나주 고막원 전투에서 패해 모두 일본군에 붙잡혔고 무안 관아에서 참수당했다. 유족들은 비밀리에 머리만 수습해 안장했고 김응문 일가의 참수는 구전으로만 전해졌다.

1992년 후손들은 김응문과 부인 함평노씨를 합장하기 위해 김응문의 묘를 찾다가 머리 유골만 발견하며 참수사실을 확인했다. 후손들은 연구와 기념사업이 준비되면 다시 발굴하기로 했고 2019년 동학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자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4월 28일 1차 발굴에서 김응문의 머리 유골은 온전한 상태로 수습됐지만 효문은 유골 흔적만 발견됐고, 산성 토양에 묻혔던 자문의 유해는 찾을 수 없었다. 2차 발굴에서는 자문의 유골이 석회관에 담겨 있어 온전한 형태로 수습할 수 있었다. 발굴 작업에는 후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봉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후손들은 충북대 인류진화연구소와 유전체연구기업 디엔에이링크에 김응문과 자문 유골의 정밀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후손들은 지난달 31일 전남대 평화통

일외교센터 주최로 열린 ‘민주·평화·디아스포라 아카데미’에서 발굴 영상 등을 공개했다.

김봉곤 교수는 이 자리에서 “김응문 일가의 유골 발굴은 고려 말 왜구 침략과 조선 초 왜란, 동학을 연결짓는 새로운 계기”라며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실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1895년 일본군에 맞선 을미의병 120여명에게 서훈을 추서했다”며 “똑같이 항일 구국 투쟁 성격을 띤 2차 동학혁명 참가자도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면에 이어

킨다는 목적 아래 “교권으로서 조선인 신자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금하고 국권 강탈의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은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신앙을 고취시키는 데에만 주력”했다. 조선 천주교의 뒤편 주교의 이러한 지시는 모두 당시 “정교분리”를 통한 선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 자 했던 로마 교황청의 시책의 영향이기도 했다. 조선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달리 천도교의 지도자인 손병희는 강제로 병합당한 조선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에 힘썼던 손병희로서는 일제의 식민지는 참기 어려웠다. 근대화에 대한 손병희의 사상은 초기 저작인 「명리전」과 「삼전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명리전」에서는 서구 근대문명의 “공화지책과 입헌정치”를 언급하고, 「삼전론」에서는 “도전(道戰: 종교)과 재전(財戰: 경제), 언전(言戰: 외교)을 통한 보국안민”이라며 조선의 근대화를 꿈꿨다.

그의 근대화 사상은 진보회 활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진보회의 운동을 “천인민이 단결하여 선진국의 문명개화를 따라 배우면 부패한 정치를 일소하고 독

립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 그러한 정책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민회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손병희의 독립사상은 3.1운동 직후 진행된 신문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일한병합 때의 칙어에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고 했는데 병합 후 조선인은 항상 압박을 받고, 관청에는 채용되지 않고, 항상 기속되고, 근자에 천도교당 건축에 있어서도 관청에서 기부금 모집을 중단시켜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즈음에 민족자결이란 것이 제창되었으므로 이번 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 (중략)… 일본인은 조선인을 일컬어 「여보살」이라 하여 열등시하는 것이 불평이며, 나 개인으로서는 나는 병합 후에는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관청의 윤령을 준수하고 복종하도록 신도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일당(排日黨)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또 현재의 총독은 20년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총독 주위의 사람이 나를 나쁜 것처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밖에 방문하지 못한 형편으로, 나는 지금까지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불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방침으로는 도저

히 조선인을 동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대화와 독립사상을 가진 손병희가 천도교 조직의 근대화 운동과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천도교 조직의 감독제 유형은 손병희의 지시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의 말단까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지도자의 생각 차이가 1910년대 천주교와 천도교의 독립운동 차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독립운동에서 천도교와 손병희를 높이 평가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이다.

한국 독립운동에서 손병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조직의 보호”에 있다. 지도력 의무 중 하나인 “조직의 보호”는 천주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주교가 총독부의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선교활동에만 집중한 것은 결과가 아쉽지만 나름의 “조직 보호”였다.

손병희 역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다만 천주교가 선교활동을 위한 조직 보호였다면 손병희의 조직 보호는 독립운동을 위해서였다.

1905년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중앙 총부를 설치하고, 대헌을 제정하면서 “신성불가침의 절대군주”가

될 수도 있었지만, 1907년 미련없이 대도주에서 물러났다. 그가 천도교의 수장으로 있을 경우, 그의 독립운동 활동이 천도교 조직을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조직 보호가 성공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천도교 조직 보호를 통해 독립운동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상과 같이 천도교의 독립운동을 손병희라는 지도자 차원에서 같은 감독제 유형 종교인 천주교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천도교	천주교	대종교
조직지시	독립운동	선교활동	독립운동
조직보호	대도주 사퇴	정교분리	만주이전
조직응집	천도교 현도	교황청 명령	확인필요

천도교가 독립운동에 적극 뛰어든 것은 손병희의 “지시”와 대도주 사퇴를 통한 “보호” 그리고 천도교 현도라는 조직의 “응집”으로 가능했다. 이에 반해 천주교는 대주교의 지시가 선교 활동이었고, 조직의 보호는 정교분리였으며 교황청의 명령이 조직의 응집활동이었다. 이처럼 천도교의 독립운동은 손병희라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강남교구 입교식 봉행



박용규, 김형래 두 동덕이 지난 5월 29일 강남교구에서 성충모 동덕을 전교인으로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박용규 동덕은 “오늘 5월 29일 저는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스승님의 말씀과 삶과 노선을 이어가고자 천도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입교식을 마쳤고, 방금 점심을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동학순국선열의 서훈쟁취에 함께 더욱 매진하겠습니다.”고 입교소감을 밝혔다. 박용규 동덕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있다.

도경교구 설립 21주년 기념식 봉행

포덕 163년 5월 20일 교구설립 21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 11시, 시일식을 겸하여 기념식을 봉행하였다.

박형래 교화부장의 집례로 개식. 청수 봉전. 주문3회 병송. 경전봉독. 천덕송. 설교(정기명 감사장). 교구연혁보고(신금순 교무부장). 격려사(박충남 도정). 축사(박창수 도훈. 박형래 교화부장). 천덕송. 심고. 폐식의 순서로 봉행. (참석 20여명)

▶도경교구 새 임원 선출

포덕 163년 1월 16일 시일식 후 도정.

도훈. 각 부장. 순회교사 등 10명 참석, 임원회의 후 1월 25일 까지 비대면 교구회의 결과 36명 참여, 찬성 결정(임원선출). 1월 27일 중앙총부 승인, 인장발급.

《새 임원 명단》

제7대 교구장: 정경주(치암), 감사장: 정기명(경암), 교무부장: 신금순(도수당), 교화부장: 박형래(형암), 경리부장: 강대진(철암), 사회문화부장: 박형래(형암), 순회교사: 백영희(성인당), 강선녀(선삼당)

대동교구 야외시일식 및 소설 '동학' 출판 봉고식



대동교구(교구장 장인갑)는 5월 29일 울산 동학관에서 야외시일식을 봉행하고, 김동련 작가의 소설 '동학' 출판봉고식도 겸하였다. 김동련 작가는 지난 봄 용담정에서 정덕재 도정을 전교인으로 입교식을 가졌고 대동교구에 출석하고 있다. “소설 동학”은 3부 6권으로 구성된 대하 동학소설이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과 구도 그

리고 득도와 포덕, 순도에 이르는 일생을 다루는 1부, 해월 최시형의 동학 입도와 동학 수련, 도통 승계와 고비원주하는 간난신고의 30여 년 역사를 다루며 교조신원운동으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서 나서는 2부, 그리고 교조신원운동 이후 동학혁명이 전개되는 3부로 구성되고 각 부를 2권으로 나누어, 모두 6권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시교구 입교식 봉행



부산시교구(교구장 박차귀)에서는 6월 5일 양송자 동덕의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양송자 동덕은 민암 이상찬 동덕의 전교로 입교하였다.

부안포 합동시일식 봉행

호암수도원에서 2년여 만에 봉행, 분기별 교구 순회기로



5월 29일(일), 호암수도원에서 부안포 합동 시일식을 봉행하였다.

코로나 19로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합동 시일식에는 코로나 19 여파와 농번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교구, 옥구교구, 익산교구 등 인근 교구 교인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식후 행사로 혜계당 윤혜준 동덕의 “아버지의 기침 소리” 시 낭송으로 가정의 달, 교인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안겨 주었다. 이날 이정희 도정(연원회의장)은 식후 인사말을 통해 “정암 선생의 비망록에 의하면 포덕 125년 5월,

300여 명의 동덕들이 이곳 수도원에 모여 시일식을 봉행하였으며, 그해 8월 14일, 지일기념식에는 500여 명의 관내 교인들이 이곳 호암수도원에서 함께 기념식을 봉행하였다”면서, “이제 때가 왔으니 지금의 침체한 교세를 다시 일으키는 데 정성을 모아나가자”고 하였다. 시일식 후에는 부안읍 아리울 식당에서 중식을 함께 나누면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부안포에서는 매 분기별로 부안교구, 옥구교구, 익산교구 등을 순회하면서 합동 시일식을 봉행하기로 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옥구교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성신당 전춘자 동덕, 부산시교구 여성회 사무실에 컴퓨터 기증



부산시교구 여성회(회장 진일당 강선순) 성신당 전춘자 동덕은 지난 5월 교구 여성회에 컴퓨터(삿가100만원 상당)를 기증하였다.

부산시교구 여성회는 전용 컴퓨터가 없어 교구 컴퓨터를 같이 쓰느라 불편을 겪었는데 성신당 전춘자 동덕의 정성으로 여성회 전용 컴퓨터를 구비하였다.

의암 성사 묘소 입구 계단 새로 단장

- 국가보훈처 북부보훈지청 시행, 호수조경(주) 시공



5월 21일~30일, 봉황각에서 의암성사 묘소로 가는 계단 및 난간 공사 완공

한강교구 합동위령식 봉행



한강교구(교구장 주용수)는 6월 첫시 일인 5일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였다. 매년 6월 첫시일을 기하여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남정포의 스승님과 교인 부모 조상님을 합동으로 위령하고 있다.

화악산수도원 개원기념 봉고식

6월 3일, 제52주년 기념



지난 6월 3일(음력 5월 5일) 화악산수도원(원장 선우철수) 개원 제52회 기념 봉고식을 개최하였다. 이상선 정원포 조정, 박정재 여성회중앙본부회장, 조광길 영등포교구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시연합어린이회 오프라인 시일식과 악기수업 재개



지난 5월 22일 부산시교구에서는 부산시연합어린이회의 시일식과 악기수업이 열렸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다 오랜만에 만나니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놀라고 많이 반가워하 더군요. 아이들의 우렁찬 주문소리가 아 직도 귓전과 마음 속에서 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달 셋째 시일에는 대동교구어린이실에서 부산시연합어린이회 시일식과 악기수업이 있을 예정이다.(글:사진/조희경)

종학대학원 사무실·강의실 이전

- 사무실 913호, 강의실 907호로



종학대학원(원장 이상면)은 지난 6월 1일 원장실, 교무처, 강의실을 307호에서 913호, 907호로 옮겼다.

이후 종학대학원 포덕163년도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6월 8일 서울분원 강의에는 대면출석 9명, 비대면(줌) 출석 22명 모두 31명이 출석하여 성장현교수의 '한국근대여성운동과 천

도교'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번 학기는 이번주 11일 강의 후 서울본원 강의종료, 다음주 18일 부산분원 강의는 종료된다.

한편 종학대학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학기 교과과정과 수강생 모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수강생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6월 5일~11일 동학농민혁명 전시회, 시민 체험전 등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2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주는 동학농민군 무혈입성과 관군과의 완산전투, 전주화약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곳이다. 더 나아가 농민군 자치기구인 집강소의 설치, 이를 통한 폐정개혁이 실현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전주성 점령일과 전주화약일 기간 동안 2022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5월 31일(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는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폐정개혁안 낭독, 동학

농민혁명과 전주의 역사적 의미 설명, 팝페라 앙상블 라 스트라다의 '승리의 합성, 희망의 노래' 공연 등이 공연되었다.

6월 4일(오전 9시 30분~오후 1시)에는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산칠봉 유적지(전주입성비, 녹두관, 초록바위), 전라감영, 풍납문 등을 탐방하였다.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전시회와 2022 동학농민혁명 시민 체험전이 열렸다. 판화 체험은 6월 5, 6일 이틀 동안 박홍규 화백이 진행하였다(사진). 영상 상영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안에 마련된 영상 상영실에서 진행되었다.

<환원 소식>

- ▶도경교구 영암 박영관 선도사(향년 89세) 포덕 163년 4월 11일 환원
유족: 박광준 외 2남 2녀
- ▶도경교구 송암 박호기 선도사(향년 78세) 포덕 163년 5월 22일 환원
유족: 내수도 화순당 강숙이, 자 박인수, 박인순

의창수도원 성금

박옥자	부산시교구	50,000
유미순	부산시교구	50,000
강선순	부산시교구	50,000
박종자	부산시교구	50,000
이은영	부산시교구	10,000
무기명		20,000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도약합니다.



대한민국정부